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7. 9.(일)

국토교통부에서는 양평군에서 최우선으로 요청한 강하IC를 반영하여 최적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겨레, 7.7) >

◆ 양평군 ‘종점 변경’ 원한 적 없다... 원희룡 주장과 정면 배치

□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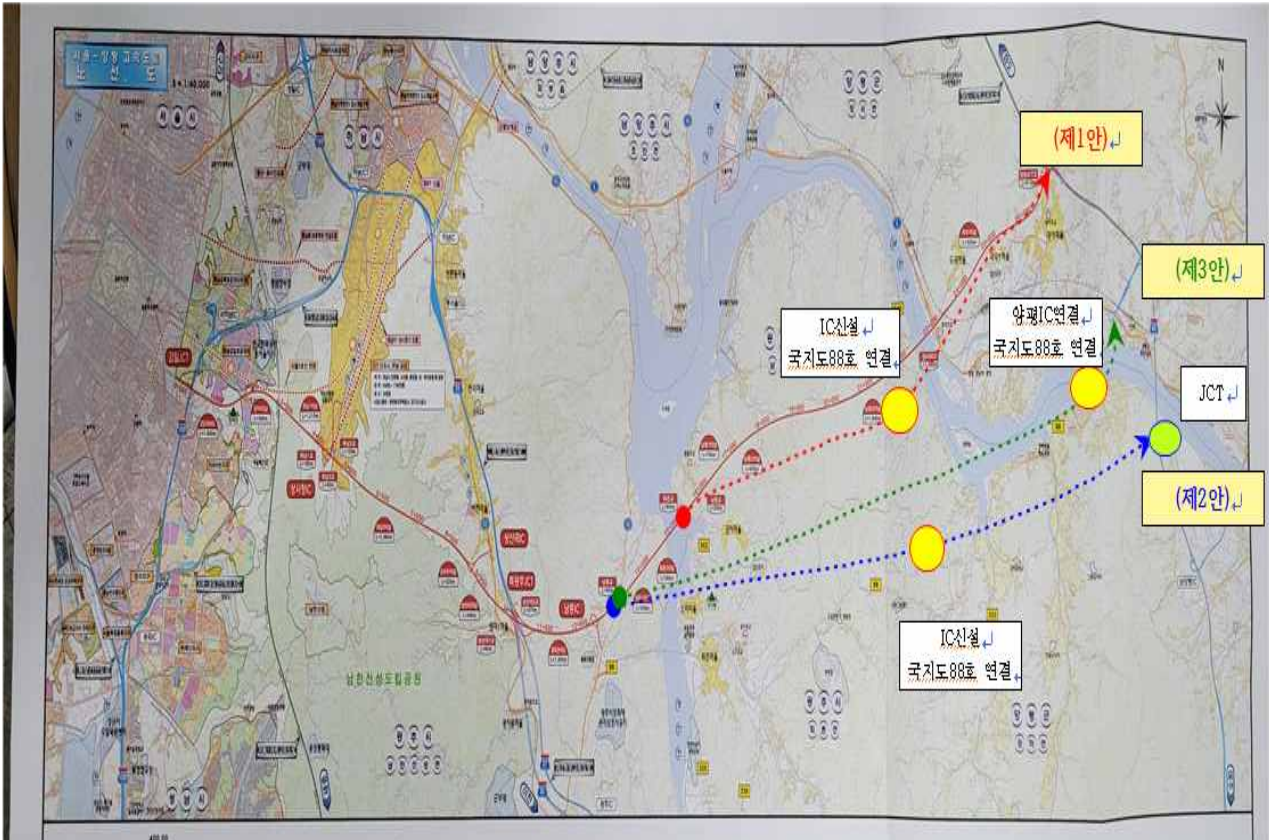
○ 양평군에서는 서울~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(‘22.7월)시

- (1안) 예타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강하면 운심리 인근(IC신설)-양평 JCT(종점 양서면)를 설치하는 안,
- (2안) 강하면 왕창리 인근(IC신설)-양평JCT(종점 강상면)를 설치하는 안,
- (3안) 강하면88호선 연결(종점)-교량연결하는 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 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신하였습니다.

○ 1안과 2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,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하였고,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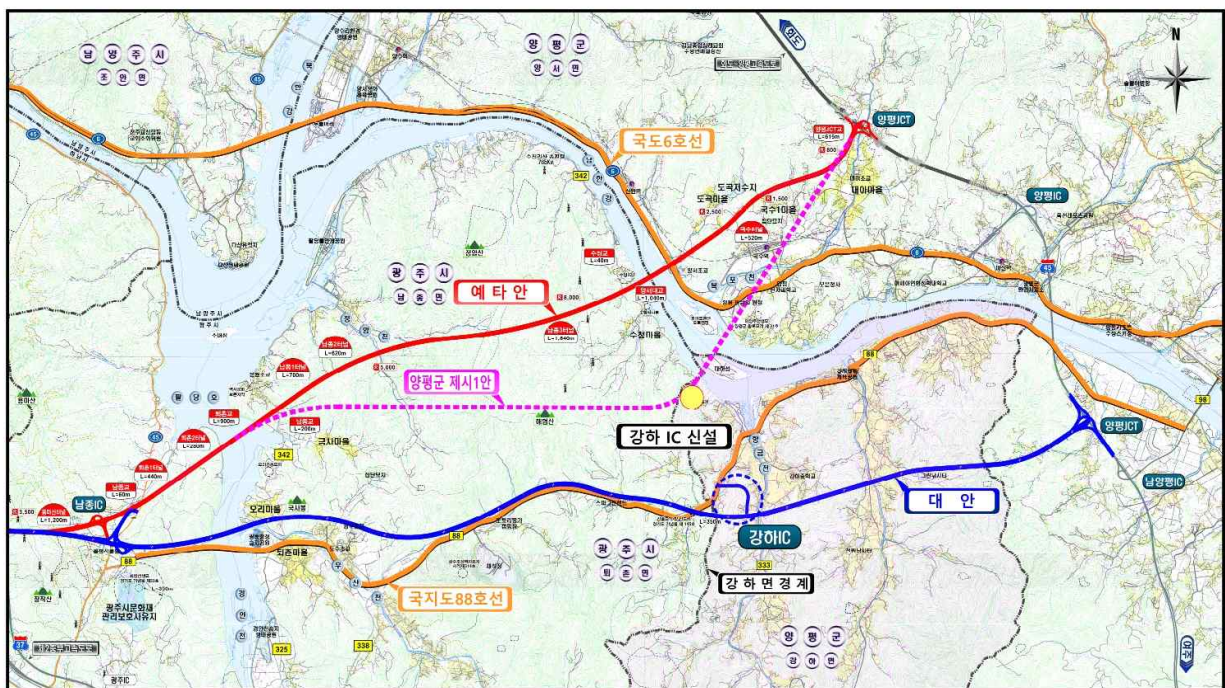
○ 국토교통부는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, 환경,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,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《 양평군에서 회신('22. 7.26)한 고속도로 노선(안) 》



* 위 도면은 좌우 배율을 많이 줄여서 양평군에서 요청한 제1안 IC위치가 양평군 강하면이 아닌 광주시로 잘못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맞게 보정하면 아래와 같음

《 서울~양평 고속도로 노선 》



-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안(양평군 제시 1안)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입니다.
-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하여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하여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.
- 또한, 양서면 분기점(JCT)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되어 운영 중인 화도~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 필요하며,
 -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되어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.
 - 아울러, 양평군 최선규 도로과장도 “양서면에 분기점(JCT)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.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《 양서면 분기점(JCT) 지역 》



* 좌측의 원은 JCT가 접속되는 부분 표시, 우측의 빨간색 선은 JCT가 설치되는 가상의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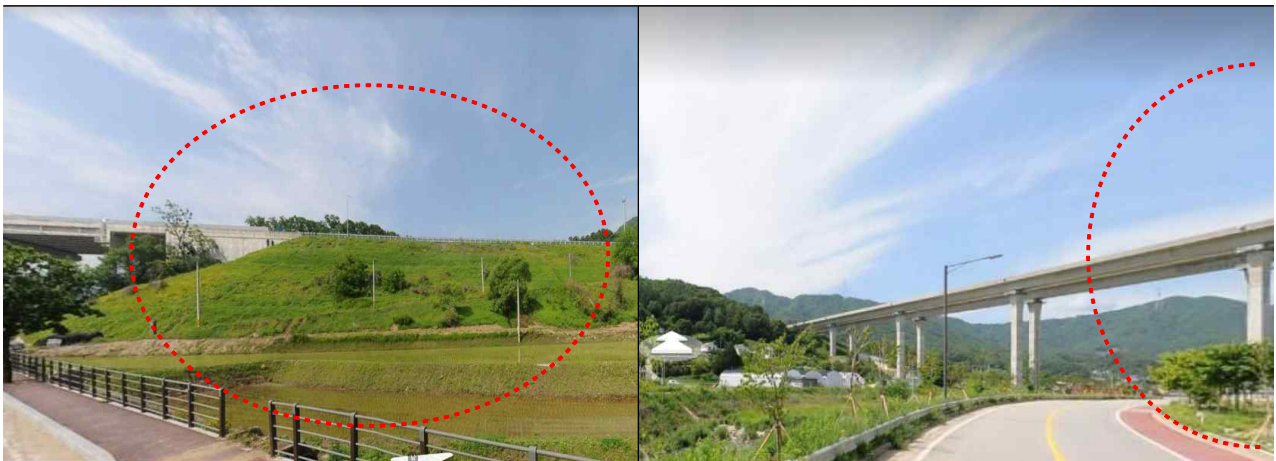
-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합니다.
- 반면에,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은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,
 -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습니다.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,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입니다.

《 예타안과 대안노선 비교 》

	예타안	대안노선
총 사업비	1조 7,695억원	1조 8,661억원
(남중-종점)	(1조 613억원)	(1조 753억원)
강하IC 설치	불가	가능
교통량 (남중-종점)	15,800대/일	22,300대/일
주민 편의성	◦ 양평군 내 IC 미설치	◦ 종점부가 양평군 중심 인근에 위치하여 양평군 전체 지역 고려 시 유리
환경성	◦ 환경성 불리 - 생태자연도 1등급 통과 연장(3.73km) -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 연장(12.25km) - 철새도래지 통과 연장(3.51km)	◦ 환경성 양호 - 생태자연도 1등급 통과 연장(1.09km) -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 연장(10.32km) - 철새도래지 통과 연장(1.45km)
주민 수용성	마을·펜션 저축 多 JCT 설치 어려움	마을·펜션 저축 小 JCT 설치 용이

- 또한, 강상면 분기점(JCT)에는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설치 여건도 훨씬 더 좋습니다.

《 강상면 분기점(JCT) 지역 》



*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안노선의 JCT 설치 부분

-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,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명희 (044-201-3875)
		담당자	서기관	이종현 (044-201-3904)

담당 부서	양평군 건설국	책임자	도시건설국장	안철영 (031-770-2045)
		담당자	도로과장	최선규 (031-770-3950)

